



김계춘 칼럼

논설실장
kckim21@ihalla.com

제주의 청정한 물과 바람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資源)이자 보물이다. 그런데 이의 사용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온 동네가 시끄럽다.

물(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건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이다. 박 의장은 지난 16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요청과 관련 반대입장을 재천명했다. “증산 허용시 제주는 공공자원의 사유화(私有化)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란 게 요지다.

박 의장은 “제주도의회는 최초 허가 일인 1993년부터 20년동안 단 한차례

제주의 ‘물과 바람’을 둘러싼 논란

도 한국공항의 증산(增産)을 허용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선배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현역인 제9대 의회 의원들도 이를 본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에 다를 바 없다. 지하수와 관련 공수화(公水化) 정책을 지키려는 박 의장의 ‘충정(衷情)’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의원들간 논의도 해보기 전에 의장이 먼저 나서 ‘대못질’을 한 것은 결코 적절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건은 지난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1일 20분만 증산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나 박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시켜 무산(霧散)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공항측이 이에 불복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취수증량 시도’를 강력 규탄했는가 하면 전직 도의원의들의 모임인 제주도의정회도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에 제주상공회의소 등은 ‘청원서 제

출은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이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조속한 동의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찬·반 양론이 맞서는 가운데 향후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바람(風)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그 중심엔 제주자치도가 지난달 지정고시한 육상풍력발전지구가 자리잡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장기적인 에너지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육상 350MW와 해상 2000MW 규모의 풍력발전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채 사업도 시작되기 전에 각종 의혹(疑惑)이 불거지며 몸살을 앓고 있다. 도내 환경단체들은 “심의 과정상의 많은 문제와 함께 결격사유가 확실한 후보지들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 추진함으로써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지구에선 법적대응 불사(不辭) 움직임을 감지된다. 논란의 와중속 제주도의회도 풍력발전지구 지정시 도의회 의의를 얻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풍력의 경우 ‘공공(公共)자원’의 범주에서 비껴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자들은 대부분 도외 대자본이다. 풍력개발로 인한 이들의 수익은 제주에너지공사의 전량(30MW 단지 조성시 연간 140억원 판매수익)을 미루어 짐작하면 실로 막대(莫大)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장치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에너지 자립기반 확보를 명분(名分)으로 내걸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풍력개발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환경 파괴 또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제주의 물과 바람과 자연은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資產)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다.

편집국 25시

제주자연의 미래는 아이들부터

문기혁
문화체육부 기자
ghmoon@ihalla.com

직업상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난다. 특히 제주자연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제주 자연을 가꾸고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주자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의 계기’를 묻게 된다. 질문이 같지만 사람에 따라 대답은 다를 법도 한데 “제주의 산을, 바다를 놀리다 삼아 성장한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한결 같은 대답이다.

서귀포시 송산동과 천지동, 정방동 일대 4.3km에 총 43개의 작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유토피아로’가 1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문을 열었다. 3~4시간을 걸

으면서 ‘유토피아로’의 43개 작품을 살펴봤는데 이 중 인상적인 작품이 있었다. 김정은·이유현 작가가 생태미술교육프로그램인 칠십리 영 탐사대 참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칠십리 영 탐사대’였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야외 설치작품이 주를 이루는 특성상 마을주민들의 작품에 대한 주인의식과 관리가 요구되는데 ‘칠십리 영 탐사대’가 장차 ‘유토피아로’의 주인이 될 아이들을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유혹한 것이다.

세계의 보물섬으로 유독 선 제주의 자연은 어느 예술작품 못지 않다. 하나의 거대한 야외 예술작품과 같은 제주 자연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리가 요구됨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의 산을, 바다를 놀리다 삼아 성장한 지금의 어른들과 달리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자라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제주의 산은 그저 산이며, 바다는 바다일 뿐이다.

환경운동가인 재인 구달은 “환경운동의 힘은 시민, 특히 어린이들에게서 비롯된다”며 어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호하기 위한 실천을 하면 미래엔 지구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자연의 가치와 미래가 아이들부터인 이유다.

> ... <

‘黑龍萬里 제주발담’ 집중 조명한다

마닐라가 위치한 필리핀제도 최대의 섬 루손(Luzon Island), ‘라이스 테라스(Rice Terrace)’라 불리는 이푸가오 다랑이논으로도 유명하다.

이푸가오 다랑이논은 해발 1000~1500m 고지대에 형성돼 있다. 끝도 없이 이어진 산줄기가 모두 크고 작은 논이다. 논둑을 이으면 지구의 반바퀴인 2만2400km에 이른다. 2000년 전부터 다랑이논을 개척한 이푸가오족은 이곳을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 부른다. 세미라미스 공중 정원 등과 함께 세계8대 불가사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제 는 연간 12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1만리를 간다고 해서 ‘흑룡만리(黑龍萬里)’라 했다. 실제로는 그 몇 배인 2만2000여km에 이른다. 제주의 발담 애기다. 꼬불꼬불 이어진 모습은 흑룡의 꿈틀거림을 연상케 한다. 척박한 환경과 맞서 싸운 치열한 삶의 흔적이다.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온 선조들의 지혜이기도 하다.

발담은 제주 전역에 분포한다. 문헌상 최초 기록은 탐라지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 고종 21년(1234년), 제주판관 김구가 경계표시를 위해 발담을 쌓을 것을 명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

다. 실제로는 훨씬 앞설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농업의 역사와 궤(軌)를 같이 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척박한 돌밭을 골라 경작지를 조성하면서 자연스레 형성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발담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1월 청산도 구들장논과 함께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도 접수됐다. 5월말 열리는 FAO총회에서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발표에 이어 현장실사·심의를 거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발담 정비와 환경개선, 프로그램 사업도 진행된다.

한라일보가 창간 24주년을 맞아 ‘흑룡만리 제주발담’ 조명에 나선다. 생활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제주의 가치를 발굴·선양해 온 한라일보가 선보이는 또 하나의 세계유산 시리즈다. 세계농업유산 등재와 제주발담의 지속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문화·경관·역사적 가치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제주형 공립 대안학교 물거품되나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이 끝내 무산됐다. 한 때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제주 자치도교육청의 ‘불가(不可)’ 방침에 막혀 원점으로 돌아갔다.

윤춘광 제주자치도의회 의원은 그간 수차례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촉구해 왔다. “제주지역 학업 중도 포기 및 학교부적응 학생은 매년 400명을 웃돌 뿐만 아니라 다수가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들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및 전인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제주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며칠 전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포기’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이란 현실적 장벽(障礙)을 인식한 듯하다. 도교육청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중도탈락자 중 실제 학교부적응 학생은 150명 정도에 그친다. 입학 희망자가 적어 대안학교를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의 행보 또한 방관자적인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공립형 대안학교는 정규학교로 초등교육법을 적용받는다. 주체가 교육감인 만큼 도지사가 만들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제주

의 소중한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직접 돈을 벌어서라도 지원하겠다”던 지난 해 이맘 때와는 달리 한창이나 몰려선 모양새다.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희망도 함께 사그라들었다.

지난해에만 도내 청소년 676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지역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모두 2155명에 이른다. 태반은 고등학생이다.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도 다양하다. 진로변경, 부적응, 질병, 가정 사정, 유학·이민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이들 가운데 학교로 돌아간 학생은 전체의 20% 안밖에 그친다.

강원도교육청이 (가칭)현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중이다.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다. 9학급 135명 규모다. 서울 노원구도 얼마 전 공립 대안학교인 ‘참 좋은 학교’를 개교했다. 이 학교의 정원 또한 20명에 그친다. 일부서는 학생들의 특성 과 성향, 요구·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도 검토중이다. 중등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보다 전향적인 결단(決斷)만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기에서 구해 낼 수 있다.

제주도정 소식

◆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발생국가 여행시 주의!

중국 등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발생국가 여행 시 조류시장 또는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방문을 자제하기 바람. □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요령 - 외출 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 손으로 눈·코·입 만지기 금지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 금지 □ 귀국 후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유사 환자 기준(신고기준) -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 발병 전 10일 이내에 중국 여행력이 있으며, - 중국 체류 중 환자 또는 가금류와의 접촉 등이 있는 경우 □ 문의 : 보건위생과(전화 : 710-2936)

◆ 기초수급자 책정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대상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접수 □ 수급 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기초수급자 책정기준은 -4인 가구인 경우 154만 6,000원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 1억3,600만원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1.04%로 인하됨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별생계비, 교복비, 집수리, 간병비 등 총 6개 사업에 8억5,000만원의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위에 어려운 가구는 우선 거주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할 것을 바라고 있음. □ 문의 : 복지청소년과(전화 : 710-2816)

◆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 대회상징물 공모 □ 공모대상 : 4층 10점(엠티블 1, 포스터 3, 구호 1, 표어 5) □ 공모기간 : 2013. 3. 15 ~ 5. 3 (공고일부터 50일) ※ 마감일 18:00까지 유효하며, 우편은 마감 당일 소인본에 한함 □ 응모자격 : 무제한(단, 부문별 1인당 2점씩을 초과할 수 없음) □ 응모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e-mail(cs9664@korea.kr) 접수 □ 당선자 시상금 : 30명, 2천만원 □ 접수 및 문의 : 전국체전총괄과(☎710-6541),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1

층, 우 690-170) ※ 도 홈페이지 : 「http://www.jeu.go.kr 활용」 → [제주홍보관, 공고/고시] 란 참조

◆ “도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제안 특별공모전”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안 특별공모전에 도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 2013. 4. 4 ~ 5. 31(2개월) □ 어떤 아이디어 : 일자리창출,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교육, 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제주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제안 □ 누가 :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어떻게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www.epeople.go.kr), 도 홈페이지(www.jeu.go.kr), 우편, 방문, 전화(710-6837) 팩스(710-6839)등을 통해 제출 □ 시상 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금상(100백만원), 은상(50만원) 동상(30만원) 장려상(10만원) * 동일한 내용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자치행정부 064-710-6837

◆ 항일운동 관련자료를 수집합니다.

□ 수집대상 자료 내역 : ○ 종독부, 제주도사 관련 자료(관보, 취체령정, 사진, 공문서 등) ○ 조선군(신식군대), 광복회, 의병, 일본 군경 등 자료(총포, 도검, 군장(의복 등), 군포 등) ○ 제주관련 고문서 및 고서(문집, 간찰, 일기, 분재기, 토지매매명문, 교지, 가격 절목, 호적 자료 등 기타 희귀자료) □ 신청자격 : 매매를 희망하는 개인,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도굴, 도난,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자료는 매도신청 불가) □ 서류접수 - 접수방법 : 등기우편(4월 30일 등기소인봉투까지 유효) 및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13. 4. 15~4. 30(화)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 * 자료매도신청서 및 매도신청자료 명세서(기념관 홈페이지 http://hangil.jeu.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03(조천1 1156번지) 제주항일기념관 <항일운동 관련자료> 수집담당자 앞 □ 문의 : 제주항일기념관(전화 : 064-710-7793)

◆ 한라산 국립공원 산나물·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 단속기간 : 6월 15일까지 □ 집중단속 : 각국립공원 등 5개 지구 32개소에 탐방공무원 30명을 지정, 순찰을 강화하고 2개조 7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 운영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문의 : 한라산 국립공원(전화:713-995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소식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3. 4. 23(화) 16:00 □ 장소 : 도의회 대회의실 □ 주최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김용범) □ 참여 : 의원, 시민단체회원, 도민 등 □ 주제 : 도 사회적 자본 육성 관련 □ 문의 : 행정자치전문위원실(☎741-2012)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위원회의 출범식 및 세미나 개최

□ 일시 : 2013. 4. 24(수) 16:00 □ 장소 : 도의회 대회의실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위원회의(회장 : 고영자) □ 참여 : 여성위원회의 회원, 여성단체·기관 회원, 의정회원 등 □ 주제발표 : 여성의 권의 신장 및 사회참여 □ 문의 : 의회운영전문위원실(☎741-2012)

■ 지방재정연구회 제12차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 2013. 4. 25(목) 14:00 □ 장소 : 도의회 대회의실 □ 주최 : 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대표 신관홍의원) □ 참여 : 도의원, 예산재정분야 관계자, 시민단체회원, 도민 등 □ 주제 : 새 정부의 재정정책과 우리도의 자주재원 확충과제 * 주제발표 : 김동욱 제주대 교수 □ 문의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741-2291)

■ 제주문화관광포럼 제6차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 2013. 4. 23. (화) 15:00 □ 장소 : 도의회 소회의실 □ 주최 : 도의회 제주문화관광포럼(대표의원 강경식) □ 참여 : 도의원,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 주제 : 제주 영상산업의 현재와 미래 * 주제발표 : 김진해 아시아영화연구소장 □ 지정토론(6명) : 이선화의원, 고혁진 기술기획PD, 도문화정책과장, 장광수 영화진흥위원회 팀장, 유인택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위원 □ 문의 : 문화관광전문위원실(☎741-2052)

■ 제44차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 2013. 4. 29(월) 16:00~18:00 □ 장소 : 도의회 대회의실 □ 주최 :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 김희연 의원) □ 참석 : 지역주민, 도의원, 관련 기관·단체, 학계 및 공무원 등 □ 주제 : 제주특별자치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 주제발표 : 강석보 (주)아메니티 소장 - 토론자 : 지금종 조양발박물관 관장 외 5 □ 문의 : 의회운영전문위원실(☎741-2012)

제주시정 소식

◆ 나무터 실천하는 녹색생활 - 10분간 전동 끄기

○ 일 시 : 4. 22(월) 20:00 ~ 20:10 (10분간) ○ 참여대상 : 관공서, 학교, 사무실, 각 가정 등 ○ 내용 : 제5회 기후변화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녹색생활실천 참여 분위기 조성 ○ 문의 : 제주시청 녹색환경과(728-2191-2194)

◆ 미혼남녀 행복커를 이어주기 참여자 모집

○ 일시 : 2013. 6. 1(토) 16:00 ~ 21:00 ○ 장소 : 그랜드호텔 ○ 대상 : 제주시 거주 20세 ~ 40세 미혼남녀 ○ 행사참여 신청기한 : 2013. 4. 30까지 ○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및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728-2512)

◆ 제43주년 지구의 날 기념 2013 지구환경축제

○ 일 시 : 4. 27(토) 11:00 ~ 18:00 ※ 차량통제 : 07:00~20:00, 산지천(동문로타라~용진교) ○ 장 소 : 산지천(동문로타라 ~ 용진교) ○ 참여대상 : 시민, 학생, 관광객 등 ○ 행사내용 - 지구의 날 기념식 - 무대행사, 체험관, 홍보·전시관, 나눔장터, 자전거 한마당 등 다양한 체험행사 ○ 문의 : 제주시청 녹색환경과(728-2741-2742)